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경험 :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Co-residence of Older Single Mothers and Ever-Single Daughters: Borderline between Overdependence and Mutual Dependence

성미애(Miai Sung)¹, 이재림(Jaerim Lee)^{2*}, 최연실(Younshil Choi)³, 최새은(Saeun Choi)⁴

¹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²Department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older single mothers and their co-resident, ever-single daughters with a focus on the meanings of co-residence and the mechanism of their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in-depth interviews were four pairs of mothers (61-64 years) and their daughters (36-41 years). Two mothers were widows, one was divorced, and one had a husband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ur thematic analysis revealed that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was a comfortable, satisfactory lifestyle for most participants. However, some mothers felt uncomfortable about their daughter's delayed marriage and their responsibilities for caring for their adult children. The mothers tended to rely on their daughters emotionally, and the daughters relied on their mothers for housework. Most participants viewed the co-resident daughter as a child who was not an adult yet, except for one daughter who financially supported the mother. The participants were concerned that others may view their co-residence negatively because the daughters were not married despite social norms about the appropriate age of marriage. The mothers did not want to be considered a barrier to their daughter's marriage, and the daughters did not want to be viewed as a child who would abandon their older single mothers. It appeared that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as enmeshed based on the mother'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er child and the daughter's sense of sympathy toward her mother. In this co-dependent relationship context, the daughter's marriage became a complicated choice both for the mothers and daughters.

▲주제어(Key words) : 모녀관계(mother-daughter relations), 비혼 성인 딸(ever-single daughter), 세대 간 동거(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아버지 부재(father absence)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NRF-2015S1A5A2A03048460), 2017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Jaerim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2-880-6853, E-mail: jrlee@snu.ac.kr

I. 서론

본 연구는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동거의 의미와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초혼 연령(남성의 경우 32.79세, 여성은 30.11세: Statistics Korea, 2017)의 상승과 독신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청년층을 둘러싼 고용 불안정의 심화, 그리고 주택 구입 가격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로 인해,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인 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기가 어려워졌다(L. Descartes, 2006; J. Lee, 2015; S. Vassallo, D. Smart, & R. Price-Robertson, 2009; M. Yamada, 2004).

이로 인하여 소위 결혼적령기를 넘긴 시기에도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성인자녀의 동거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대중매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한 입장은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분거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과,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기생독신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과는 달리, 실제 비혼자나 켄거루가족을 살펴본 연구들(Y. Choi, 2014; M. Sung, 2014; M. Sung, Y. Choi, S. Choi, & J. Lee, 2017 등)을 살펴보면, 성인자녀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부모 돌봄이나 부양 행동을 하는 등 동거상황에서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은 다양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선행연구의 지평도 확대하고자,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가족에서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는 가족에서 부부관계, 부-자녀관계라는 하위체계의 실질적 부재는 모-자녀관계 등 다른 하위체계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통적 가부장제 의식이 오늘날에도 잔존하고 있는 한국 가족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의 존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한 가족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 다른 하위체계 간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부모-성인자녀 간 세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E. Crimmins & D. Ingegneri, 1990; R. Ward, J. Logan,

& G. Spitze, 1992)에 따르면, 세대 간 관계나 동거는 부모의 욕구보다 성인자녀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는 성인자녀가 홀로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성인자녀가 어머니의 홀로됨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장기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C. Roan & R. Raley, 1996)에 따르면, 어머니의 배우자 상실은 모-성인자녀 간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혼 딸의 경우는 비혼 아들과는 달리 어머니와 같은 젠더로, 유사한 생애경험을 갖게 되므로 가족 내 어떤 하위체계보다 높은 밀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S. Cho, 1996).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밀착은 모녀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위체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상호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성인기 부모자녀관계에서 긴장과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혼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하지만, 밀착된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하는 연구주제이다. 더욱이 가족관계의 경우 하위체계 간 경계가 지켜지지 않거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존 관계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관계의 해체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계의 질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아버지 부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A. Geller, C. Cooper, I. Garfinkel, O. Schwartz-Soicher, & R. Mincy, 2012; A. Lincoln, E. Swift, & M. Shorteno-Fraser, 2008; C. Roan & R. Raley, 1996)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아버지 부재 상황이 성인자녀 및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역할을 살펴본 연구(A. Alford, 2016)가 있을 뿐이며, 이 연구에서도 이들의 밀착된 관계를 다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를 쌍으로 모집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어머니와 딸의 동거가 갖는 의미와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상황에서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비교적 심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비혼

딸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이들 가족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을 계획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아버지 부재와 모-성인자녀 관계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다른 하위체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계 중심 가부장적 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아버지의 부재가 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 부재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서구에서는 이혼, 미혼모, 죽음, 실종, 파병, 레즈비언 부모 등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였다(A. Geller et al., 2012; A. Lincoln et al., 2008). 또한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C. Roan & R. Raley, 1996), 부모의 이혼 또는 사별이 성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 Mack, 2001), 자녀의 아버지 부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L. East, D. Jackson, & L. O'Brien, 2007; M. Howard, 2013), 부모의 이혼 후 청소년 딸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나 빈도가 딸의 심리적 적응과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 Koerner, S. Wallace, S. Lehman, & M. Raymond, 2002; M. Luedemann, M. Ehrenberg, & M. Hunter, 2006)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성인자녀를 연구참여자로 하더라도 성인된 이전의 경험을 회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예외적으로, 홀로된 어머니에 대한 성인 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A. Alford, 2016)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아버지 부재가 개인의 적응이나 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어머니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지속되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유배우 여부와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홀로된 부모는 배우자가 있는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지원을 덜 하며(T. Cooney & P. Uhlenberg, 1992; D. Eggebeen, 1992), 반대로 자녀는 배우자가 있는 부모보다 홀로된 부모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 Eggebeen, 1992).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는 부모 쪽 요구보다는 자녀 쪽 요구가 반영된 거주형태가 대부분(W. Aquilino, 199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에서는 자녀들이 홀로된 어머니와 함께 동거할 가능성이 크며, 홀로된 어머니는 기혼인 부모보다 성인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L. Bumpass, J. Sweet, & A. Cherlin, 1991; T. Cooney, 1989; E. Crimmins & D. Ingegneri, 1990)도 있는 등 자녀의 요구보다 홀로된 어머니의 상황이 성인자녀와의 동거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된 어머니와 성인자녀 간 동거와 접촉을 장기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C. Roan & R. Raley, 1996)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지위의 변화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세대 간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성인자녀 관계 연구 중에서는 모녀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적지 않다. 특히 노년기 어머니와 중년기 이후 딸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고(K. Fingerma, 1997 등), 부양상황에 관심을 둔 연구(J. Gonyea, R. Paris, & L. de saxe Zerden, 2008; L. McGraw & A. Walker, 2004; L. Pecchioni & J. Nussbaum, 2001)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녀관계는 부자, 부녀, 모자 관계에 비해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밀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밀감, 애착, 즐거운 경험(B. Cho, E. Yoo, J. Lee, & H. Choi, 1996; K. Fingerma, 2000; K. Im & Y. Chun, 2009; S. Nam & J. Kwon, 2016; L. Smith, E. Hill, & R. Mullis, 1998)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은 갈등관계일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긴장이나 갈등에 주목한 연구(K. Fingerma, 1996; R. Ray, 2003; P. Usita & B. Dubois, 2008)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R. Blieszner, P. Usita, & J. Mancini, 1996; K. Fingerma, 1998; E. Lefkowitz & K. Fingerma, 2003)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을 모녀관계에 적용한 연구(I. Kim, S. Lee, & S. Lee, 2010; K. Pillmer & J. Suitor, 2002)도 다수 발표되었다.

2.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청년층의 실업 및 고용불안정성의 심화와 함께, 비혼율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성인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언론에서는 이

를 켄거루족 현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켄거루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배경에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의존하는 자녀세대를 지칭하는 ‘기생독신(parasite single)’(M. Yamada, 2004)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언론에 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성인자녀의 일방적 의존으로 보면서 부모에게 부정적이라고 보는 연구결과들(J. Aldous, 1987; K. Birditt, K. Fingerman, & S. Zarit 2010; S. McLanahan & J. Adams, 1987; B. Mitchell & E. Gee, 1996)과, 성인자녀의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적 의존이 함께 일어나며, 두 세대 모두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들(W. Aquilino & K. Supple, 1991; Y. Choi, 2014; Y. Lee, Y. Lee, H. Choi, & H. Lee, 2011; J. Suitor & K. Pillemer, 1988; M. Sung, 2014; M. Sung et al., 2017)이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나 의존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가족갈등, 가족기능의 약화를 유발하며, 성인자녀보다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두 번째 입장의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두 세대 간 관계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를 ‘의존’이기보다 ‘유대’로 인식하는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를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M. Sung et al., 2017)에 따르면, 이들 가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혼 성인자녀의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세대의 능력과, 이러한 삶의 형태를 당연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이들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현재는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비교적 두 세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부모세대가 부양이 필요한 중기 및 후기 노인이 되면 세대 간 관계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화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켄거루족에 대한 언론과 일반인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부모-자녀 ‘관계’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를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발달과정상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보다는 ‘의존’이나 ‘유대’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M. Sung et al., 2017).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지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결혼준비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H. Jang, J. Hwang, I. Choi, Y. Kim, J. Joo, & S. Kim, 2015). 따라서 비혼 상태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및 관계는 다각도로 검증이 필요한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가족 내의 여러 하위체계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모집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이들의 어머니 양측의 동거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동거하는 비혼 딸과 어머니를 쌍으로 모집하였다. 비혼 딸은 만 35세 이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하였고, 어머니는 만 75세 미만이고 사별·이혼·별거·질병 등의 사유로 남편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부재한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하였다.

비혼 딸의 연령을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여성의 경우 약 30세(Statistics Korea, 2017)이고, 만 3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하는 시기를 넘긴 연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노년기를 만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노년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본 연구(K. Yun & M. Sung, 2017)에 따르면, 만 74세까지는 중년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비해 만 75세 이상의 중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여러 가지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0대 중반부터는 신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어머니와 비혼 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 공지를 게시하는 한편, 리서치회사에서 보유한 면접 참여자 풀에 등록된 사람 중 본 연구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모집 공지를 발송하여 이루어졌다. 비혼 딸과 어머니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모집 조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

고자,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모집 공지를 보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참여자에게 전화로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일정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부재한 만 75세 미만의 어머니 4명, 그리고 이들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비혼 딸 4명 등 총 8명이었다. 이들의 전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면접 당시 어머니의 연령은 만 61-64세(1953-1956년생)로 60대 초반이었고, 딸의 연령은 만 36-41세(1976-1981년생)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걸쳐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졸 2명과 대졸 2명이었고, 딸의 교육수준은 고졸 1명, 전문대졸 2명, 석사 1명으로 다양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자영업, 전업주부, 요양보호사, 음악강사였고, 딸의 직업은 회사원 2명, 음악강사, 텔레마케터였다. 어머니의 소득은 없음에서부터 월 500만 원 이상까지로 다양하였고, 딸의 소득은 10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200만 원대 후반까지였다. 아버지 부재 사유는 사별 2사례, 이혼 1사례, 장기입원(식물인간 상태) 1사례였다.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는 아버지 부재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었고, 장기입원인 경우는 약 5년이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로 다양했고, 소유형태는 자가 2사례, 전세 1사례, 영구임대 1사례였다. 동거하는 다른 가족구성원은 모녀와 비혼 아들 세 명이 동거하는 경우가 3사례, 모녀 단둘이

거주하는 경우가 1사례였다. 생활비 출처는 주로 어머니인 경우가 2사례, 주로 딸인 경우가 1사례, 동거하는 비혼 아들인 경우가 1사례였다.

2. 자료수집

자료는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을 활용한 개별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비혼 딸과 어머니를 쌍으로 모집하였으나, 이들을 동시에 면접할 경우 모녀관계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면접은 어머니와 딸을 각자 따로 만나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 내용이 연구주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면접지침을 준비하였다. 면접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특성 질문과 동거의 배경, 동거에 대한 인식, 모녀의 상호작용 양상, 모녀관계에 대한 인식, 상호지원의 내용, 향후 동거 및 모녀관계에 대한 전망 등이었다.

심층면접은 2017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접을 시작하였으며, 1회의 면접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준비한 면접지침을 활용하되, 질문의 순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질문하였으며, 추가질문(probing)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한 의도, 의미, 맥락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심층면접은 약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Interview

	Mother 1	Daughter 1	Mother 2	Daughter 2	Mother 3	Daughter 3	Mother 4	Daughter 4
Age	62	39	64	36	63	41	61	38
Educational level	4-year university	Master's degree	Middle school	2-year college	Middle school	High school	4-year university	2-year college
Job	Business	Music instructor	Stay-at-home mother	Office worker	Senior care provider	Tele-marketer	Music instructor	Office worker
Monthly income (KRW)	5,000,000+	2,500,000	None	2,000,000	1,500,000	1,800,000 -1,900,000	1,500,000	2,800,000
Reason for father absenc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Deceased		Deceased		Divorced	
Length of father absence	5 years		26 years		23 years		29 years	
Housing	Rented detached house		Owned multiplex house		Subsidized apartment		Owned apartment	
Other family member in the household	Unmarried son (D1's younger brother)		Unmarried son (D2's older brother)		Unmarried son (D3's younger brother)		None	
Source of living expenses	Mother		Co-resident son		Mostly mother		Mostly daughter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구자들의 대학교 연구실이나 교동이 편리한 회의용 공간에서 면접자와 참여자가 단둘이 만나서 이루어졌고, 면접 완료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면접은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하면서 면접 지침을 수정하고 연구 노트를 공유하였다. 면접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치밀하게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자 모집 및 심층면접의 전 과정은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한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특정 이론의 틀을 따르기 보다는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연구자의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V. Braun & V.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V. Braun and V. Clarke(2006)가 정리한 6단계 주제분석법에 맞추어,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시각에서 보는 동거 및 삶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고 연구결과를 서술하는 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은 비혼 딸과 어머니를 쌍으로 해서 각 쌍별로 따로 면접 자료를 읽었다. 이 과정에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심층면접 때 작성한 연구 노트도 서로 교환해서 읽었다. 이러한 읽기 과정을 통해 개별 사례 및 어머니-성인 딸 간 쌍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연구자들이 각각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별 연구자별 코딩 작업이 마무리된 후 비혼 딸과 어머니 쌍별로 다시 코딩을 하였다. 연구자의 개별 코딩 작업이 끝난 뒤 모든 연구자가 만나

서 전체적으로 코딩 내용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확정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 간 크게 이견을 보인 코딩 내용은 없었다.

3단계에서도 모든 연구자가 만나서 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통합하고 검증하면서 의미 있는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혼 딸과 어머니에게서 보편적으로 도출된 주제는 의지가 되는 딸, 가사 일을 전담하는 어머니, 불편한 외부시설들, 밀착된 모녀관계, 복잡한 선택이 되어버린 딸의 결혼 등이었다. 그리고 비혼 딸과 어머니 쌍 별로 독특하게 도출된 주제는 편안하고 행복한 동거, 불편하고 속상한 동거, 켄거루족 딸, 부양자로서의 딸 등이었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중심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도출된 중심 주제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5단계에서는 연결되는 중심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삶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범주는 '동거'와 '관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에 대한 인식'과 '딸과 어머니의 관계'라는 두 가지로 범주를 명명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를 통합해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제는 <Table 2>에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인의 연구자들이 코딩 및 주제도출, 주제명 선정 및 정교화, 연구결과 해석 등에 대해 대면회의, 전화, 이메일의 소통창구를 통하여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충분히 훈련한 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1인을 통한 동료검증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이 과잉 해석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심 주제와 범주를 확정하였다.

Table 2. Emergent Themes

Major themes	Sub-themes
Meanings of co-residence	- Comfortable, pleasant co-residence versus uncomfortable, unpleasant co-residence - Mothers relying emotionally on daughters and daughters relying on mothers for housework - Others' negative perceptions
Mechanisms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 Enmeshed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 Dependent daughters versus providing daughters - Daughter's marriage as a complicated choice

IV. 연구결과

1.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에 대한 인식

1) 편안하고 행복한 동거 vs. 불편하고 속상한 동거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인 인식, 즉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이며 함께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는 관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성인자녀가 결혼을 하여 독립해야 할 시기에 동거한다는 점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딸과 함께 살면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어머니의 관점도 발견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모두 나타났으며, 딸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비혼 딸과 어머니가 동거하는 이유는 “(결혼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부모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진술한 어머니 1의 말처럼, 성인 딸의 비혼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혼 딸-어머니의 동거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4명 중 3명은 비혼 딸과의 동거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명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비혼 딸과의 동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연구참여자는 어머니 3이었다. 어머니 3은 비혼 딸이 능력이 없어서 분가를 못한다고 인식하면서, 동거로 인해 자신의 가사 일이 줄지 않고 성인 딸의 귀가시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같이 있으니까 걱정되죠. 결혼 안하고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딴 거는 뭐. 능력이 안돼서 나가질 않고 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어떤 때는 속상하죠. 그냥 나가면 내가 일이 좀 줄겠죠. (중략) 따로 나갔을 때는 아유 내가 저기 안 하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연락 안 되고 하면 걱정이 되죠. 불안하고. 요즘 세상이 안 좋잖아요. (어머니 3)

어머니 1과 어머니 2는 비혼 딸과의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4의 경우 “딸하고 살아서 안 좋은 점은 조금 간섭을 받아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어머니 1, 2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비혼 딸과의 동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삶의

형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어머니-비혼 딸과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밑바탕에는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하며, 떨어져 살면 모르는 남과 다를 바 없다는 어머니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

저는 가족끼리 사는 게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도 떨어져 있으면 정이 없잖아요. 근데 매일 부닥치다보면 ‘저녁에 뭐 먹을거야? 뭐 먹을까?’ 이렇게 항상 문자 카톡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운동을 제가 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남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가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1)

또한 비혼 딸뿐만 아니라 비혼 아들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어머니 3을 제외하고는 연구참여자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외로움을 가족 간 동거로 해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비혼 딸과의 동거를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딸과의 동거로 인해) 불편한 거는 없는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그냥 자식한테 막 올인을 해서 키웠어요, 우리 딸을. 저는 편하고 좋죠. 저는 애 떼어놓고는 못 살아요. 같이 살면 좋은 점은 뭐 다 좋죠 뭐든지. (같이 살지 않았다면 내가) 외롭겠죠. 자식 옆에 끼고 살고 싶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1)

비혼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비혼 딸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방점을 두는 부분은 달랐다. 비혼 딸은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와의 동거 상황에서 얻는 ‘편안함’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부모님과 살면서 불편함과 좋은 점이 있고. 제가 혼자 살면서 뭐 이렇게 장점 단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자유롭게, 제가 혼자서 요리라던가, 혼자서 있는 생활을 즐겨가지고 이러지 않을 바에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생각은 그래요. (딸 1)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딸들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가 높지 않았다. 현재 어머니-성인 딸이 동거하는 집은 모든 가족원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열린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타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은 어머니나 비혼 딸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분거 경험이 있는 비혼 딸 3조차도 독립된 공간이 없는 상황을 전혀 불편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간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 방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방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어요). 엄마 방은 완전히 독립적인 엄마 방이고요. 각자의 방들은 그냥 피차 서로 안 건드려요.”라고 진술한 비혼 딸 4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공간을 배타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다.

공간은 같이 그냥 같이 그냥 스스럼없죠. 까탈 부리고 여긴 내 방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어머니 2)

독립된 공간이 없어요. 한편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굳이 지금처럼 지내도 굳이 불편함은 없으니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어색하거나 성인이 됐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딸 2)

2) 의지가 되는 딸, 가사 일을 전담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에 관한 인식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서로가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동거하는 성인 딸은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고, 필요할 때 의논상대가 되는 존재라는 점이 중요했다. 비혼 딸의 관점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가사 일을 전담해 주는 데서 오는 편리함이 부각되었다.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우선, 배우자 부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젠더에 속하는 비혼 딸이 의지가 되고 의논 대상이 되는 것을 동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 4는 생활비 대부분을 비혼 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딸이 ‘부양자’인 아버지 역할, 본인은 ‘가사 일 전담자’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진술하였다.

좋은 점은 의지가 되는 점이 좋고 둘이만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모

르는 사이에 재가 아빠 역할을 하고 내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되고 보통 부부가 사는 가정처럼 못 박고 수선하는 일은 재가 하고. (중략) 지금은 너무 행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고 지금 내가 돈은 안 벌지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고. (어머니 4)

연구에 참여한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비혼 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의논을 하는 대상이었다. 어머니들은 비혼 딸이 인터넷에 거부감이 없고, 변화에 좀 더 적응적이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딸과 의논하고자 하였다.

전에는 나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애들한테 자문을, 애들한테 배울 건 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껴요. 요즘은 이제 자문을 얻어요. 많이. (중략) 다 상의를 해요. 제가 애들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영리해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현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애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 의견도 얘기하고 거기서 절충을 해서 그래요. (어머니 1)

어머니들에게 있어 비혼 딸이 의지와 의논 상대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비혼 딸에게는 어머니가 가사 일을 해주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어머니와 비혼 딸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가사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고, 비혼 딸들은 어머니와의 동거로 인해 가사노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현실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가사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본인도 가사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어머니가 가사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는 상황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집안 살림이랑 밥은 항상 챙겨주셨어요. 살림을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전적으로 이제 엄마한테 하니깐. 아직도 밥을 차려주고 하니깐. 근데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레 엄마가 해주시니까. 근데 제 입장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약간 좀 그렇죠.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딸 2)

성인 딸과 동거하면서 가사 일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어머니 3은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나머지 어머니들은 “(가사 일을 제가 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라는 어머니 2의 진술처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근거해서, 동거하는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본인이 가사 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 역시 딸을 챙겨 먹이기 위해 가사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전부 다 해줘요. 일절 다. 평일에는. 빨래서부터 다 해주고, 와서 먹고, 그냥 본인 씻고, 잠자는 거 본인이 얼굴 씻는 것만 하게끔 지금까지는. (중략) 그래도 내가 엄만데 아직까지는 가정주부고, 엄만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은 놀잖아요. 다 종일 내 시간이잖아요. 근데 직장생활하고 온 애들한테 그거는 또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해서, 마무리까지는 다 해줘요. (어머니 2)

내가 다 하죠. 음식도 다 만들고 다 하죠. 짜증은 나는데 일단은 음식을 잘 해서 먹여야 애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사는 거죠. 우리 딸이 시간이 있는 날은 아침 먹은 거는 설거지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의 다 하는 편이죠. (어머니 1)

특히 어머니 4는 현재는 딸이 주 부양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사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취업했을 때 딸을 잘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사 일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사 일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성인 딸에게 “너희는 사회생활 힘드니까 집에 와서 쉬어라 이런 마인드세요”(딸 2)라고 읽혀지고 있었다.

지금은 내가 노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빚 갚는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바빠서 사실 재한테 그렇게 엄마같이 엄마로서는 잘 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이해를 많이 해주고 해서 지금 내가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해선 불만이 많이 없죠. 내가 그 때 못했던 게 미안하니까. (어머니 4)

또한 거의 전적으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가 가사 일을 전담하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비혼 딸의 동거가 새로운 주거 공간이나 비혼 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살림 공간이 어머니의 오래된 활동 공간이었기 때문에 비혼 딸이 가사 일을 하면서 어머니 살림에 관여를 하는 상황은 자칫하면 어머니와 비혼 딸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비혼 딸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막고자 하는 비혼 딸의 의도도 어머니가 가사 일을 전담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약간 살림을 건드리기가... 자꾸 거슬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버릴 것만 보이고. 근데 그게 엄마는 안 바뀌니까.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되니까 안 하자,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손을 못 대게 한다기 보다는 어쨌든 버리는 걸 싫어하시니까. 거기서 부터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딸 1)

3) 불편한 외부시선들

어머니-비혼 딸의 동거 상황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보는 외부시선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시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즉 결혼적령기를 넘긴 성인 딸의 비혼 상태에 대한 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어머니-비혼 딸 동거에서 이루어지는 부양 관계에 대한 오해가 어머니와 비혼 딸 모두에게 불편한 시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딸이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혼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딸이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외부인이 인식한다고 보고 있었다. 비혼 딸 역시 결혼적령기가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정상범주에 드는 삶은 아닌 것으로 외부인들은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디가 좀 모자라게 생각하지 않나 주변에서... 결혼을 지들이 안 할 뿐인데 어디가 조금 모가 나서 결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시선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걸로 봤을 때 멀쩡한데 결혼을 안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까봐 그게 조금 물어보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 2)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상 범위 내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여자랑 남자랑 약간 좀 틀린데, 빨리 결혼해서 나가서 살아야, 빨리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딸 1)

한편 부양 관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비혼 딸이 외부 시선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비혼 딸이 배우자가 없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혼하고 혼자된 어머니에게 잘 해야 한다는 주위 압력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딸 4의 경우는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를 버리고 나온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옆에서 딸 데리고 산다고 그럴까봐. 내가 딸한테 기대서 사는 것 같이 그럴까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까봐. 그런 면도 있겠지 딴 사람들 보기에는. 딸 의지하고 그러고 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시집 식구들. 아니 딸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같이 사니까 결혼 안하고 사니까. 이제 돈 벌어서 내가 다 쓰는 줄 알거 아니예요. 결혼 안하고 이제 내가 혼자 사니까 딸 덕보고 산다는 그런... 내 자격지심이겠지만. (어머니 3)

완전히 세뇌가 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아직도 그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엄마랑 둘이 살아야 하면 이런 자세한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듣다 보면 “엄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하셨겠네. 너 엄마한테 잘 해야겠다.” 이게 진지하게 계속 강요를 하시니까 너무 많은 [부담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엄마 혼자 있고, 제가 외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너 독립해야지?” 이런 얘기는 그 누구도 안해요. 도리어 내가 만약 나온다면 약간. 버리고 나왔냐는 느낌인 거 같아요. (딸 4)

2.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관계

1) 밀착된 모녀관계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밀착된

양상을 보였다. 때가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을 가진 어머니 1, 2, 3과 성인 딸 1, 2, 3, 4나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적 결혼관을 가진 어머니 4 모두 적령기를 넘긴 딸의 결혼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성인 딸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시간이 멈춰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모-성인자녀 체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세월이 안 갔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는 너무 셋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들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셋이 다 마음이 똑같네” 내가 그러고 마무리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셋이 다 서로가 불만은 없어요. 너무 생활하는 게 행복해요. (중략) 내가 아프지 않고, 그냥 시간이 묶여져 있다면 이 시간이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빨리 안가고 멈춰져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2)

이렇게 밀착된 어머니-성인 딸 관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책임감, 그리고 어머니를 안쓰럽게 느끼는 딸의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나는 내 자식이 내 인생에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냥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살다 가야죠. 그럴 생각이예요. 아빠가 저러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라는 어머니 1의 진술처럼, 배우자 부재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딸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가 좀 안쓰러운 존재였죠. 돌아가시고 났을 때는.”라고 언급한 딸 2의 진술처럼, 홀로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안쓰러움이 강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성인 딸이 홀로된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안쓰러움은 어머니-성인 딸 관계를 밀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재도 다른 아빠가 있고 부모가 좀 풍족하게 살았더라면 모든 거를... 좋은 신발에, 좋은 옷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며 살았겠지만 그렇게 못 하게끔 그 혼자 철이 일찍 들었다는 점. (어머니 2)

특히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비혼 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배우자를 사별한 30대라는 생애시기를 본인도 거치게 되면서 홀로된 어머니의 상황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은 애뜻함과 함께 작동하면서 두 관계를 더 밀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보다 어린 나이에 애들을 낳고 막내 동생을 낳고 또 나보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근데 그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다 참아 내셨던 거니까. 그게 조금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 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엄마가 정말 많이 어렸구나. 정말 젊으셨구나. 정말 꽃다운 나이에 혼자되셨구나.’ 이런 생각에 좀 죄송해요. (딸 3)

2) 켄거루족 딸과 어머니 vs. 부양자 딸과 어머니

연구에 참여한 4쌍의 모녀 중 3쌍은 딸이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나 도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모녀관계를 규정하였고, 1쌍은 딸이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관계로 모녀관계를 인식하였다. 어머니와 비혼 딸 모두 결혼을 통해 성인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딸은 여전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애’로 인식되었으며, 성인 딸 역시 어머니와 동거하는 생활을 ‘동지’ 속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생활비 대부분을 딸이 부담하고 있는 어머니 4만이 예외였다. 어머니 1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품안의 자식이죠. 아직도”라고 하였다. 특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씹씹이가 헤폰 성인 딸인 경우 철이 없는 ‘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애 같은 느낌이지) 줄어들겠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우선 1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마음도 조금 덜해질 거고. 또 본인 가정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해질 것 같고. 저 가정이 우선 1순위가 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가서 근무만 하고 오면 되지. 근데 근무하고 와도... 이제 회사를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회사 다녀도 근무하고 오면 집에 와서 내 책임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해질 것 같아요. (결혼하면) 강해지고, 어른이 되어 가는 거고... (어머니 2)

한편, 동거하고 있는 성인 딸을 ‘애’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거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인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 딸의 진술에서 잘 드러났다. 특히 어머니와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성인자녀의 일상 생활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성인 딸 스스로도 자신을 어린인 적은 하지만 여전히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이) 아닌 거 같아요. 아직 애기 같을 때가 있긴 해요. 어찌됐든 엄마한테 케어 받고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성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어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좀 반반 느낌이 있죠. 어른인 적은 해요. 어른인 적은 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보호받고 싶고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죠. (딸 3)

이처럼 비혼 딸을 여전히 철이 없는 ‘애’로 인식하는 어머니와,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머니와 동거해 왔기 때문에 어머니나 본인 모두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할 계기가 없었다고 보는 비혼 딸을 봤을 때, 이들의 동거 관계는 켄거루족 딸과 어머니의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 켄거루족의 삶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로부터 생활 전반을 지원받는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본 연구참여자 중 딸 1, 2, 3은 ‘켄거루형’이며, 딸 4는 그 반대인 ‘어머니 부양자형’이라고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연구참여자인 비혼 딸이 켄거루족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를 슬하에 두고 살고 싶어 하는 의도와,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경제력 및 일상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혼 딸의 인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같이)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한은 내가 밥도 먹여주고 다 내가 해주고 싶어요. (중략) 내가 경제 능력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중략) 그냥 나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냥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살다가야죠. 그럴 생각이예요. (어머니 1)

약간 두렵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나
이가 좀 들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당처럼 그
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독립을 해서 해봐야 되는 필요성도 아
는데. 그게 딱히 계기가 뭔가 해야 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제가 성
격상, 이게 약간 켄거루족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딸 1)

더욱이 이러한 성인 딸의 인식은 한번 분거한 후 심신
이 지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부메랑족인 비혼 딸 3의 경우에 더 적나라하
게 드러났다. 비혼 딸 3은 ‘고당의 삶’, ‘켄거루족’의 삶으
로 본인의 삶을 인식하고 있는 비혼 딸 1처럼,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지금의 삶을 ‘둥지’ 속의 삶으로 표현하였
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주는 어머니를 ‘엄마 새’
로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지금은 엄마한테 받는 느낌이라 켄거루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제가. 엄마가 많이 힘들겠다는 생
각이 좀 들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구
나라는 생각이 있다가도. 아직 그게 겁나는 거
죠, 둥지 밖을 나가는 게. 둥지 밖을 나갔다 와
봤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엄마가 조금 더 견재
했으면 이런 생각이. 엄마 아픈 게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아직 그런 거. (중략) 엄마 새 느낌이에요 모
이 주면 받아먹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은. 둥
지 안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물어다주는
모이 먹고 있고. 아직 뭐 나가지 않았으니까 둥
지 안에만 있으니까. 계속 엄마는 물어다주는
거, 제가 먹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딸 3)

반면, 어머니를 부양하는 비혼 딸 4의 경우 생활비를
거의 다 대기 시작하면서, ‘딸이 의지하던’ 어머니-딸 관
계가 이제는 ‘어머니가 의지하는’ 어머니-딸 관계로 역전
되었다고 밝혔다. 딸 역시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주위의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어머
니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어머니를 부양해
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족쇄’로 표현할 정도로 강한 부담
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딸)가 나를 굉장히 의지했는데 내가 지금은.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해외를 나가고 그것도
딸이 다 대고. 저는 이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게 되고. (중략) 의지를 많이 하는데
아. 그게 바르다고만 볼 수 없는데 어쩔 수 없
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어머니 4)

엄마는 오로지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원래 부
모는 두 명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분이고 그
래서 그냥 뭐랄까 내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나도 그거에 대해 보답을. (중
략) 보은을, 보답을 해야 한다는 그게 저는 너
무 많이 세뇌에 박혔어요. 이런 표현 맞을지 모
르겠는데요. (엄마는) 그냥 내가 끝까지 책임져
야 하는 사람? (중략) 족쇄와 부담이죠, 사실.
(중략)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안 받고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으면 엄마의 부담감만 늘어날 거 아니예요.
좋은 결과 없을 것 같아서 말 사실 못하는데
상당히 쪼들리면서 살고 있긴 해요. 이 나이 때
하고 싶은 것들을 거의 못하면서 살죠. (딸 4)

이렇게 역전된 관계 속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비혼 딸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역시 권력이 딸에게 이동하면서 본인
이 갑(甲)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을(乙)의 위치로 변경되
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 관계 변화에 대해
어머니 4는 초기에는 견디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그냥 받
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 이
렇게 모녀관계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편안 것도 있어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잘 할 때는 확실히 갑
(甲)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을(乙)이 돼요. 어느
틈에 변한지 모르게 보니까 ‘아 내가 을(乙)이
되었네.’ 권력이 재(비혼 딸) 쪽으로 이동이 되
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못 견딜 때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중략) 재가
(내가) 엄마지만 엄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지
금은 엄마를 사랑스러워하고 나를 예뻐해요 맨
날. 밖에서 전화해서 ‘엄마 화났어’ 이렇게 말하
면 재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린대요. 그
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재를 무
서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재가 나를 굉장히 의지했는데 내가 지금은...
(중략) 많은 게 양면성이 있어요. 서글픈 것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머니 4)

3) 복잡한 선택이 되어버린 딸의 결혼과 모녀관계

선택적 결혼관을 보이는 어머니 4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해야죠. 빨리.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요.”라고 진술한 어머니 1처럼 보편적 결혼관을 보였다. 특히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머니 3은 “결혼하면 난 좋죠. 뭐 좀 내 맘이 편할 거 같애. 결혼해서 나가면.”이라고 진술하면서 연구참여자 중 가장 긍정적으로 비혼 딸의 결혼을 희망하였다. 특히 어머니 3은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고 있었으며, 노후에 기댈 사람은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든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과 연결하면서 불안해하였다.

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항시 불안하죠. 빨리 결혼해서 애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지. (연구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예. 가서 애 낳고 지 가정 갖고 그러고 살면 보기에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애를 못 가질까봐 아 그게 걱정이죠. 나이 먹어서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도 의지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있으면은 뭐 동생들이 뭐 이제 지 살기 바쁜 세상이라서 뭐 챙겨주겠어요? 못 챙겨주지. 남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지 자식이 있어야 좋지. 기댈 데가 있지. (어머니 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혼관과 달리 연구참여자인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경우 밀착된 2인 관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지가 않았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안계시니까 아빠의 몫까지 처음에는 이제 정을 줘서 키워야 되겠다하는 면에서 많이, 거의 애들 남매 위주로 생활을 했죠.”라는 어머니 2의 진술처럼, 자녀와 밀착된 상태에서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인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을 ‘허전함’, ‘서운함’, ‘마음을 접어야’ 하는 생활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성인 딸의 결혼이지만, 딸의 결혼으로 인해 ‘분신’처럼 생각한 비혼 딸과의 동거 체계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

는 보편적 결혼관만 없으면, 현재의 동거 체계로 계속 생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진짜 너 분신처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나는 그냥 마음에서 봐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고, 서운하겠지요. 같이 지금 계속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접어야죠. 접어야죠. (중략) 그냥 모든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는데.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2)

한편, 이러한 모녀 동거 체계가 딸의 결혼 때문에 해체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어머니 1의 경우는 본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혼한 자녀들과도 함께 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 내가 비워야죠. 왜냐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그때는. 나도 이제 그렇겠지만. 제 소원은 그러니까 같은 집에,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딸은 2층에 나는 1층에 살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모르겠어요. (어머니 1)

특히 딸이 생활비를 다 대고 있으며, 비혼 딸과의 동거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어머니 4의 경우 현재 딸과 동거하고 있는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사후 혼자 남게 되는 딸을 걱정해서 딸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4의 경우 “그냥 엄마가 아닌 나 인간으로서 내 욕심만 차리자면 (딸이 시집을) 안 가는 게 좋죠.”라는 진술처럼, 딸이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자신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딸의 결혼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보였다.

저는 지금 사실은 (딸이 집에) 있는 게 좋은데 보내야죠. 결혼 시켜야죠. 더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하니까. 언젠간 아무리 사람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언젠간 내가 갔을 때 재가 얼마나 혼자 남겨두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없을 때. (연구자: 따님이 만약 결혼 한다고 하면 따로 살아야겠다고.) 지금 마음은. 그래서 대신 강아지를 키

우려고. 가까이는 살고 싶어요. 그냥 엄마가 아닌 나 인간으로서 내 욕심만 차리자면 안 가는 게 좋죠. (어머니 4)

이러한 어머니의 인식과 유사하게 딸의 입장에서 결혼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생활사건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비혼 여성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시가의 문화, 고부갈등,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한 인식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혼으로 인해 혼자 남겨지는 어머니의 존재가 딸의 결혼 결정을 복잡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앞서 언급한 어머니가 딸의 결혼에 대해 갖는 양가적 감정을 비혼 딸 역시 갖고 있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남겨지면 엄마 혼자잖아요. 엄마 혼자고, 생활에 독립적인 부분도 그렇고 남들처럼 섣뚱 ‘어 나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결혼으로 인해 나랑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중략) 지금도 “결혼해도 돼, 해도 돼” 하지만 본심은 사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로 내가 여기서 변해버린다(주: 생활비를 안주고 결혼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길 텐데. 다 괜찮은 듯 말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안 되는 거. 사실 속내는 그런 거 같아요. (딸 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모녀 간 동거의 의미와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가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들은 동거하는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이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인 아버지 부재 상태의 모녀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사별·이혼·질병 등의 사유로 남편이 실제로 부재한 어머니 4명과 이들 어머니와 동거하는 결혼한 적이 없는 딸 4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여 면접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거에 대한 인식과

모녀관계라는 두 가지 큰 주제 하에 ‘편안하고 행복한 동거 vs. 불편하고 속상한 동거’, ‘의지가 되는 딸, 가사 일을 전담하는 어머니’, ‘불편한 외부시선들’, ‘밀착된 모녀관계’, ‘갇겨루족 딸과 어머니 vs. 부양자 딸과 어머니’, ‘복잡한 선택이 되어버린 딸의 결혼과 모녀관계’이라는 세 부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첫째, 어머니와 비혼 딸이 동거하는 이유는 성인 딸의 비혼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와 비혼 딸의 동거에 대해 불편하고 속상하게 인식하는 경우와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식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머니와 성인 딸의 동거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생활양식으로 인식되면서 서로 의지하는 체계로 작동한다. 그러나 동거 체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야 외로움을 해소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 반면, 비혼 딸은 어머니와의 동거 상황에서 얻게 되는 편안함에 방점을 둔다.

이처럼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존 비혼 성인자녀를 살펴본 연구(Y. Lee et al., 2011)와 동일하게 성인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으며, 부모세대에서도 동거 상황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거의 보고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연구결과(W. Aquilino & K. Supple, 1991; J. Suitor & K. Pillemer, 1988)와 일치하였다.

둘째,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상황에서 가사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도맡아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사분담에는 슬하의 딸을 챙겨줘야 한다는 어머니의 의지와, 취업해 있는 딸과 집에 있는 어머니라는 전통적 역할 분담 의식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가 새로운 주거 공간이나 비혼 딸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 살림에 대한 관여로 인해 관계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혼 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어머니가 가사 일은 전담하고 있거나 비혼 딸의 존재는 배우자가 실제로 부재한 어머니에게 중요한 의논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토대로 비혼 성인 딸과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을 동거 여부에 따라 비교한 연구결과(S. Kwon & M. Chin, 2016)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혼 성인 딸은 어머니와 동

거하지 않은 비혼 성인 딸에 비해 평일에 가사노동을 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 일은 어머니가 전담하지만 비혼 딸이 의논 상대가 되어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의지가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동거, 부모의존 비혼 성인자녀의 세대관계를 살펴본 연구(Y. Kang, 2016)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여성 가족부의 제3차 가족실태조사자료 중 25-40세 부모동거 비혼 성인자녀의 응답을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도구적 지원에서 무교환형이나 수혜형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정서적 지원에서는 무교환형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상호교환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는 현재의 동거 상황을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을 보는 외부 시선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딸이 본인 부양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 걱정하고, 비혼 딸의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경우 어머니를 버리고 나온 것으로 오해할까 걱정하면서 부양에 대해 부담을 갖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발달과정상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보다 ‘의존’이나 ‘유대’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인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M. Sung et al., 201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보면,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와 비혼 딸은 자신들의 동거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외부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상가족이념이 사회에 남아있으며, 이러한 이념은 실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인과 같은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비혼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 관해서는 첫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거하는 비혼 딸과 어머니는 밀착된 양상을 보인다. 어머니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딸의 결혼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지만 현재 동거하고 있는 체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비혼 딸 역시 홀로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안쓰러움과 어머니가 배우자를 사별한 생애발달단계를 본인도 거치면서 어머니에 대해 애뜻한 마음에서 밀착된 관계를 지속한다.

둘째, 비혼 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머니는 비혼 딸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로 인식한다. 아동기, 청소년기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딸을 돌봐주는 동거관계를 지속하면서 자녀를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혼 딸 역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를 슬하에 두고 살

고 싶어 하는 의도,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경제력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서, ‘고당’의 삶, ‘동지’ 속의 삶, ‘엄마 새’라는 표현처럼, 전형적인 켄거루족의 삶을 산다.

반면, 어머니를 부양하는 비혼 딸은 ‘자신이 의지하던 관계’가 ‘어머니가 의지하는 관계’로 역전되면서 자신의 상황을 ‘족쇄’로 표현할 정도로 어머니 부양에 대해 심한 부담을 느낀다. 어머니 역시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의 위치로 권력 관계의 변화를 느끼면서, 서글픔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갖는다.

셋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혼 딸과 어머니는 밀착된 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를 넘긴 성인 딸의 결혼이지만, 두 세대 모두 딸의 결혼으로 인해 동거 체계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갖는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에 따라 비혼 딸의 결혼 결정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활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처럼 아버지가 부재한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상황과 모녀관계는 가사노동 등 일상생활의 유지 측면에서만 보면 비혼 딸이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보인다. 그러나 모녀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상호 의존이 이루어지면서 밀착된 2인 관계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 의존적인 동거 상황이나 모녀관계는 부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라는 하위체계가 부재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배우자 부재 어머니들의 내면에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품안의 자식’인 비혼 딸의 존재에 의지하는 마음, 이런 딸에게 가사노동과 때로는 생활비까지 제공하면서 어머니 정체성이나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 비혼 딸과 동거하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아버지 부재 비혼 딸들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상황과 어머니의 결혼지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자신의 결혼을 통해 어머니가 혼자 남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 등 복잡한 감정이 존재하였다.

또한 자녀를 혼자 키운 ‘홀어머니’에 대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나 이중적인 외부시선은 상호 의존적인 동거 및 모녀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딸이 ‘홀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타인들이 생각할까봐 걱정하였다. 반면, 비혼 딸들은, ‘홀어머니’에 대한 효의식이나 부모부양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대 때문에 쉽게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밀착된 모녀관계는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비혼 딸의 결혼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이

증폭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부모-성인자녀 간 동거 상황에서도 가족체계의 형태나 관계 양상에 따라 작용하는 상호 의존의 메커니즘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성인자녀 간 동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때도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맥락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상호적 의존 측면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호작용 양상 외의 내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비혼 성인 딸이 동거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파악하는 초기 연구로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의 체험에 집중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동거하는 비혼 아들 등 다른 가족구성원의 목소리를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비혼 딸의 쌍을 모두 심층면접한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지만,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비혼 자녀들이 동거하는 가족체계 전체의 역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4사례 중 3사례에는 동거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에 관한 이들의 인식과 모자관계를 함께 분석했다면 가족체계이론의 전체성 관점을 보다 면밀하게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 부재 사유나 부재 기간 등 아버지 부재라는 상황의 다양성을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녀관계의 변화와 같은 시간 요인을 분석에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 이혼, 질병 등 아버지의 부재 사유나 아버지의 부재 기간에 따라 동거경험이나 모녀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사별, 이혼, 질병과 관련한 경험이 모녀관계를 어떻게 재구조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딸이 의지하는 관계에서 어머니가 의지하는 관계로 모녀관계가 변화했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생애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아버지 부재 상황에서의 모녀관계를 종단적으로 탐색하거나, 어머니의 노화에 따라 모녀의 동거경험이나 관계역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비혼 딸의 동거 상황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쌍으로 모집하여 이들의 목소리로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또한 캥거루족이라는 현상을 실제 연구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내 모녀관

계를 생애 후반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REFERENCES

- Aldous, J. (1987). New views on the family life of the elderly and the near-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227-234.
- Alford, A. M. (2016). *Daughtering and daughterhood: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ole of adult daughters in relation to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X.
- Aquilino, W. S. (1990). The likelihood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05-419.
- Aquilino, W. S., & Supple, K. R.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3-27.
- Blieszner, R., Usita, P. M., & Mancini, J. A. (1996). Diversity and dynamics in late-life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Journal of Women & Aging*, 8(3-4), 5-24.
- Birditt, K. S., Fingerman, K. L., & Zarit, S. H. (2010). Adult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5B(2), 145-153.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umpass, L. L., Sweet, J. A., & Cherlin, A. (1991).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913-927.
- Cho, B.-E., Yoo, E.-H., Lee, J.-S., & Choi, H.-K. (1996). Three generations of mothers and daughters: attachment patter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4), 191-201.
- Cho, S. W. (1996). Mothers and daughters: Interactions between elderly mothers and adult daughters focusing on caregiv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 118-127.
- Choi, Y. S.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75-89.
- Cooney, T. M. (1989).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A comparison of divorced and widowed women. *The Gerontologist*, 29(6), 779-784.
- Cooney, T. M., & Uhlenberg, P. (1992). Support from parents over the life course: The adult child's perspective. *Social Forces*, 71(1), 63-84.
- Crimmins, E. M., & Ingegneri, D. G. (1990).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Past trends, present determinants, future implications. *Research on Aging*, 12(1), 3-35.
- Descartes, L.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3), 137-147.
- East, L., Jackson, D., & O'Brien, L. (2007). 'I don't want to hate him forever': Understanding daughter's experiences of father absence.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4), 14-18.
- Eggebeen, D. J. (1992). Family structure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s. *Research on Aging*, 14(4), 427-447.
- Fingerman, K. L. (1996). Sources of tension in the aging mother and adult daughter relationship. *Psychology and Aging*, 11(4), 591-606.
- Fingerman, K. L. (1997). Being more than a daughter: Middle-aged women's conceptions of their mothers. *Journal of Women and Aging*, 9(4), 55-72.
- Fingerman, K. L. (1998). Tight lips?: Aging mothers' and adult daughters' responses to interpersonal tensions in their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5(2), 121-138.
- Fingerman, K. L. (2000). "We had a nice little chat": Age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mothers' and daughters' descriptions of enjoyable visi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5B(2), 95-106.
- Geller, A., Cooper, C. E., Garfinkel, I., Schwartz-Soicher, O., & Mincy, R. B. (2012). Beyond absenteeism: Father incarceration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49(1), 49 - 76.
- Gonyea, J. G., Paris, R., & de Saxe Zerden, L. (2008). Adult daughters and aging mothers: The role of guilt in the experience of caregiver burden. *Aging & Mental Health*, 12(5), 559-567.
- Howard, M. M. (2013). *Self-identified well-functioning adult sons' lived experiences of father absence and perceived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ybrook University, San Francisco, CA.
- Im, K.-E., & Chun, Y.-J. (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other-daughter attachment and unmarried adult daughter's ego-resilien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197-208.
- Jang, H., Hwang, J., Choi, I., Kim, Y., Joo, J., & Kim, S. (2015). *2015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Kang, Y. J. (2016).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their coresident parents: Focus on intergenerational exchanges and family valu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7(3), 387-403.
- Kim, I. J., Lee, S. I., & Lee, S. H. (2010). A qualitative study on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of mother with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5), 73-85.
- Koerner, S. S., Wallace, S., Lehman, S. J., & Raymond, M. (2002). Mother-to-daughter disclosure after divorce: Are there costs and benefi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469 - 483.
- Kwon, S., & Chin, M. (2016, May). *Housework time of unmarried daughters and mother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2016 Joint Spring Conference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p. 237), Seoul, Korea.
- Lee, J. (2015). Revisiting young adults' instrumental dependence on their parents. In Y. Choi, S. Koh, H. Kwon, Y. Nam, H. Bae, M. Sung, . . . S. Choi, *Speaking about Korean families: Phenomena and issues* (pp. 379-403). Seoul: Hawoo.
- Lee, Y.-B., Lee, Y., Choi, H., & Lee, H. (2011). An explorative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3), 5-30.
- Lefkowitz, E. S., & Fingerman, K. L. (2003).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feelings and behaviors in mother-daughter ties in later 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607-617.
- Lincoln, A., Swift, E., & Shorteno-Fraser, M. (2008).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with parents deployed in military comba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8), 984-992.

- Luedemann, M. B., Ehrenberg, M. F., & Hunter, M. A. (2006). Mothers' discussions with daughters following divorce: Young adults reflect on their adolescent experiences and current mother-daughter relation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6(1-2), 29-55.
- Mack, K. Y. (2001). Childhood family disruptions and adult well-be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ivorce and parental death. *Death Studies*, 25(5), 419-443.
- McGraw, L. A., & Walker, A. J. (2004). Negotiating care: Ties between aging mothers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6), S324 - S332.
- McLanahan, S., & Adams, J.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1), 237-257.
- Mitchell, B. A., & Gee, E. M. (1996). "Boomerang Kids" and Midlife Parental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5(4), 442-448.
- Nam, S., & Kwon, J.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mother-daughter intimacy during the daughter's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1(3), 395-414.
- Pecchioni, L. L., & Nussbaum, J. F. (2001). Mother-adult daughter discussions of caregiving prior to dependency: Exploring conflicts among European-American women.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2), 133-150.
- Pillmer, K., & Suitor, J. J. (2002). Explaining mothers' ambivalence towar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02 - 613.
- Ray, R. E. (2003). The uninvited guest: mother/daughter conflict in feminist geront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17(1), 113-128.
- Roan, C. L., & Raley, R. K. (1996).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contact: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ult children's response to their mother's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708-717.
- Smith, L. M., Hill, E. W., & Mullis, R. L. (1998). Relational perceptions in mother-daughter attachments. *Marriage & Family Review*, 27(1-2), 37-49.
- Statistics Korea. (2017). *Social Indicators of Korea 2016*.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9629
- Suitor, J. J., & Pille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1037-1047.
- Sung, M. (2014).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2), 131-141.
- Sung, M., Choi, Y., Choi, S., & Lee, J. (2017). Elderly parents-unmarried adult children relationships: Group differences by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39-158.
- Usita, P. M., & DuBois, B. C. (2008). Conflict sources and responses i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Perspectives of adult daughters of aging immigrant women. *Journal of Women & Aging*, 17(1-2), 151-165.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 Ward, R., Logan, J., & Spitze, G. (1992). The influence of parent and child needs on coresidence in middle and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209-221.
- Yamada, M. (2004). *Parasite single no ji*. (translated by Kim, J. H.).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The original version was published in 1999).
- Yun, K. I., & Sung, M. (201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an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16.

□ Received: June 15. 2017

□ Revised: August 15. 2017

□ Accepted: September 13. 2017